

研究論文

제주도 기업가 晴岩 朴宗實 연구*

고 광 명(공동저자)** · 진 관 훈(공동저자)***

- | | |
|-------------------|-----------------------|
| I. 머리말 | IV. 박종실의 경영정신과 사회적 공헌 |
| II. 박종실의 생애와 어록 | V. 맺음말 |
| III. 박종실의 기업경영 활동 | |

I. 머리말

이 논문은 제주의 대표적인 근대 무역인으로 한국 해운업의 발전토대를 마련했으며 제주도 근대경제 형성에 이바지한 晴岩 朴宗實의 기업가 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박종실은 근대 제주지역의 사업가로 1905년 제주최초의 상점인 <朴宗實商店>을 제주면 1도리에 개점하여 상당한 기업성과를 이룩한 제주의 대표적 기업가이다. 또한 박종실은 신용과 근면, 절약을 상인정신으로 삼았으며 신용제일주의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현금과 부동산 그리고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도를 낮추며 시세변동에 대비하는 경영전략을 가진 사업가였다.

『조선실업신용대감』(1931)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에는 총 29 명의 기업가가 활동하였다. 그 중 한국인은 18 명(62%), 일본인은 11 명(38%) 이 기업경영 활동에 참여하였다. 한국인 중에서는 박종실이 가장 먼저 기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영업 초기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S2033).
 **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 기업전략론 전공.
 ***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 한국경제사 전공.

박종실상점의 취급품목은 식료품, 잡화, 포복상 등이었으며 연간매출액은 4 만 6 천 백圓으로 일본인 기업가를 포함하여 제주도 제1위의 기업성과를 나타내었다.¹⁾ 이처럼 박종실은 근대 제주경제의 실권을 장악하며 지역자본 형성과 제주도민의 소비생활을 위해 헌신한 독보적 인물이었다.

한국경제 버블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후, 한국경제는 건전한 생산윤리와 사회적 공헌이라는 기업의 본질이 날로 희박해져 가고 있으며 개인의 사리사욕에 목적을 둔 부동산투기나 부적절한 재테크방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기업가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태에서 신용과 근면, 절약을 경영신조로 하여 지역자본 형성과 제주도민의 원활한 소비생활을 위해 기업을 경영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의 성과인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했던 제주도 기업가 박종실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현대 기업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 기업가를 하나의 인간집단으로 인식하여 이들을 중심에 놓고 역사와 현실을 함께 고민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여태껏 제주도 기업가에 관한 연구는 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으며, 제주도 기업인들 또는 제주인들 자신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을 연구 고찰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자료상의 어려움, 정치상황의 변동 연구결과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제주도 기업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가 불가능하였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제주도 기업가의 역사를 조명하는 첫 시도로 식민지시기 기업가의 기업경영 활동 및 경영정신과 관련하여 당시 제주도 기업가들이 어떤 철학과 사고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하였는가에 대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주도 기업가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비단 제주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기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식민지 시대라는 특수한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활동한 한국 기업가들의 활동양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글의 구성은 II장에서 박종실의 생애와 어록을 살펴본 후, III장에서는 박종

1) 岡田寅喜(編), 『朝鮮實業信用大鑑』(東京 日本興信所京城支所 1931), 18~19 頁

실의 기업경영활동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초로 IV장에서는 박종실의 경영정신과 사회적 공헌을 서술하였다.

II. 박종실의 생애와 어록

1. 박종실의 생애

근대 제주경제의 대표적인 기업가로 박종실, 황순하²⁾, 강성익³⁾을 들 수 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 이후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40년 간 상공업분야에 모범적 인물로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한라산 북쪽에는 박종실, 서귀포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한라산 남쪽에는 강성익을 꼽는다.

박종실은 1885년 5월 4일(호는 晴巖, 본관은 밀양) 제주시 이도동에서 부친 元吉⁴⁾씨와 모친 耽羅 崔氏의 3남(宗實, 宗學, 宗熙) 1녀(宗順)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운 가계 때문에 5살 되던 해 부친을 따라 큰댁이 있는 전라도 부안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큰댁의 형제들과 어울려 한학을 공부하며 유년시절을 보내다 12세 때 다시 제주로 내려온다. 제주에 내려온 뒤 소년 박종실은 목포 등지로 장사 길에 나선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⁵⁾

-
- 2) 황순하(黃舜河: 1896~1978)는 호는 牛公으로 제주지역의 사업가로서 해방 이후 五賢學園을 설립하여 육영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는 다년간 양조업을 운영하여 자본을 축적하는데 성공하여 제주양조(주), 鷄林자동차(주), 南星産業(주) 사장 등을 지냈다. 1939년 제주도어업조합 감사, 1941년 제주도물산(주), 제주해면기업(주), 興亞商工(주) 사장, 1943년 영화·연극 및 부대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朝日俱樂部를 설립하여 사장은 일본인 萩原駒藏이고 그는 감사역을 맡았다. 김찬흠 편저, 『20세기 제주인명사전』(제주문화원 2000), 434 쪽
- 3) 강성익(康性益: 1892~1968)은 호는 南洲로 제주지역의 사업가로 1960년에는 제주도지사를 역임하였다. 1928년 남부운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서귀포를 기점으로 모슬포와 성산포간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그는 통조림공장과 단추공장을 경영하고 陸海物産 판매업까지 운영하였다. 위의 책, 51 쪽.
- 4) 원래 박씨일가는 전라도 靈光이 고향이며 지금부터 100여년 전 부친 박원길이 단신으로 제주도에 건너와 商路를 개척했고 박종실이 그 뒤를 이어 자수성가하였다. 청암선생추모회, 『청암선생 신용은 생명』(일간내외경제코리아헤럴드, 1979), 150 쪽
- 5) 위의 책, 24 쪽

이런 상황에서 박종실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수단으로 장사의 길을 선택하였다. 처음에는 성냥, 양초, 실, 바늘, 창호지 등을 공급하는 소규모 소매업에서 출발하여 이 마을 저 마을로 행상을 다니며 돈을 모은 다음, 이 돈을 밑천 삼아 1903년 18세 되던 해에 매입한 寶都飯店(현 제주시 칠성로) 자리에 일상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상설 소매상점을 개설했다. 이 당시 박종실은 가게 뒷뜰에 있는 앵두나무와 복숭아나무 열매조차도 집에서 먹지 않고 가게에 내놓고 팔 만큼 장사에 대한 애착심이 강했으며, 항시 최선을 다 했다⁶⁾고 한다.

박종실은 1907년 22세 되는 해 모친을 여의고, 얼마 뒤 부인 晋州 姜氏⁷⁾를 맞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다. 그로부터 한달 후 박종실은 뜻밖에도 제주읍 서문골 갑부 趙德三⁸⁾으로부터 어머니가 생전에 맡겨두었던 60圓을 받아 이를 밑천으로 삼아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게 되었다⁸⁾.

당시 제주에는 식량뿐만 아니라 면직물, 의류품, 기계류 등에 이르는 모든 생필품을 외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상권은 일본인 상인의 손에 놓여 있었다. 그나마 제주도에서 생산되어 육지로 이출되었던 해산물, 소가죽, 한약재들 역시 일본인 중개인의 손을 거쳐야 거래가 성사되던 상황이라 교역의 이익 또한 일본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종실은 지역상권의 탈환과 지역자본 형성을 위해 당시 일본인이 독점하던 제주상권에 도전장을 내게 된 것이다⁹⁾ 당시 그는 물가시세 변동에 대비하여 재산을 현금, 부동산, 상품으

6) 위의 책, 26쪽

7) 崔甲壽(박종실의 3남 朴景勳 부인)씨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중문면 대포리 출신으로 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차곡차곡 묶어 노인당 앞에 서던 장에 내다 팔 정도로 시아버지보다 더 부지런하고 영리했다고 술회한다. 제주역사연구회, 『제주 제주인』 제2집(1992), 74쪽

8) 박종실의 3남 박경훈에 의하면 부친은 18세 때부터 帆船을 타고 목포를 왕래하며 육지와 교역을 했다. 오직 신용만을 자본으로 갈포, 담배, 성냥, 양초 등 일상용품을 제주도 일원에 독점 공급하면서 착실히 기반을 닦은 부친은 1920년대 초에 君代丸, 服木丸 등 제주도와 일본 大阪을 잇는 정기연락선이 생기면서 일본에서 타월, 양산, 솜, 석유, 밀가루 등을 잡화를 들여와 크게 성공하였다고 한다. 또한 부산과 목포 등을 거점으로 한 일본인 상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여 결국, 일본상인을 누르고 제주도 일원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한다. 청암선생추모회, 앞의 책, 150쪽

9) 1930년 이전에는 무역수출입 모두 목포가 4할 부산이 6할을 차지했는데 大阪 항로 개통 이후에는 상품가격 및 저렴한 운임 등의 관계로 大阪 방면과의 거래가 왕성하게 되어 무역정세가 일변하였다. 그래서 제주도는 독자적인 위치와 특산물을 갖고 大阪, 下關 등 일본의 상권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맺어왔다. 당시 주요 수출품은 鮮魚, 貝類, 버섯, 전복, 어물통조림, 牛皮, 약재, 縹綿 등이

로 분산 투자하며 근면, 절약, 신용을 생활화하며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 또한 그는 박명효(朴明効), 김근시¹⁰⁾ 송두옥,¹¹⁾ 박재만(朴再萬) 등 지역기업가와 함께 바람직한 기업경영방식과 기업윤리를 모색하는 한편 토착자본에 의한 제주도민들의 경제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사업의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박종실의 기업 활동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면, 1922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해운업에 손을 대면서 본격적인 해운업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22년 박종실의 해운업은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해운업사의 기초가 되었다. 해운업 확장을 위해 1922년 제주축항기성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동년 8월에 제주자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해운회사인 제주상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감사역을 맡았다. 동사는 평소 친교를 맺어온 김근시, 崔允滄,¹²⁾ 金壬吉 등과 합작으로 설립하여 부산, 목포 등과의 연안항로의 개설은 물론 大阪, 下關의 일본항로까지 개설하고 제주도민의 해외진출¹³⁾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본격적으로 한국해운업의 발전에 초석을 기틀을 만들었다.

또한 1925년 제주전매서 개설에 참여하여 초창기 전매서 발전에도 참여하는가

며, 수입품으로는 米穀, 小麥粉, 설탕, 면직물, 기타 의류품, 기계 및 부품, 맥주, 소주, 성냥, 모자 등 이었다. 善生永助, 『濟州島生活狀態調査』(1929)(遇堂圖書館 2002), 75~78 쪽

- 10) 김근시(金根蓆 1875~1956)는 호는 又菊으로 한말의 관리와 일제시대의 사업가이다 1922년 제주상선주식회사, 1924년 제주면업주식회사, 1928년 제주주조주식회사, 1935년 소화운송주식회사, 1940년 제주수산주식회사(1939년 제주도해조주식회사를 상호변경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여러 차례 전남도회 평의원에 당선되었다. 김찬흠(편저), 앞의 책 97 쪽
- 11) 송두옥(宋斗玉: 1850~1922)은 제주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樞軒이다. 조선조 말기의 무신으로 고종 때 제주관판 및 정의·대정 양군수를 역임하였다. 한말 무과에 급제하고 그의 형 宋之玉과 함께 18척의 대선단을 거느리고 해산물을 교역한 당대의 부호이다 위의 책 256~257 쪽
- 12) 최윤순은 1925년 제주통운주식회사를 일본인 萩原駒藏와 합자회사로 설립하여 제주도내 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삼도리에서 소라통조림공장을 설립·운영하였고 제주상선주식회사(1922), 제주면업주식회사(1924), 제주전기주식회사(1925)의 취체역도 겸직하였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상의55년사』(1991), 189쪽.
- 13) 제주도민의 본격적 渡日이 시작된 것은 1919년 阪神 공업지대로의 모집에 응하면서 비롯되었다. 1922년에는 남자가 3천1백98명, 여자가 3백5명으로 총 3천5백명이 도일하였다 1925년 渡日者는 1만5천9백6명, 1927년 1만9천2백4명으로 점차 증가하여 1939년에는 약 8만 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 즉 1가구에 1명씩 渡日하였다 진관홍,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노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1호(2004), 166쪽, 河明生, 『韓人日本移民社會經濟史』(明石書店 1997), 53~57頁 참조

하면 제주도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하자 강성익, 최윤순 등과 함께 1925년 제주통운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취체역에 취임하여 제주도 육상교통의 발전에도 이바지하였다. 1931년에는 제주도 유통 분야의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밀가루, 설탕, 소주 등을 주요 품목으로 취급하는 제주상사조합을 설립하고 초대조합장에 취임한다. 이 조합은 1935년 제주상사주식회사를 받기하여 법인회사로 되기까지 적지 않는 애로를 겪었다고 한다. 동년 제주상사주식회사를 해산한 후, 삼일해운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취임되고 같은 해 제주상사조합도 제주상사주식회사로 개편하였다. 그 후 박종실은 제주상공인의 친목과 단결로서 상공업상의 폐해를 교정하고 상권의 옹호와 발전을 위하여 제주상공회¹⁴⁾을 설립하여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제주도내 중소 상공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민간단체인 제주상공회는 상공인들의 인식부족으로 권익옹호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¹⁵⁾고 한다.

1939년 박종실은 삼일해운주식회사를 제주상운주식회사로 개편하여 사장에 취임하고 1940년 4월에는 제주도생활필수품상업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장에 취임하였다.

그 후 1945년 4월 일제에 의해 소개령이 내려지자 제주에서의 기업 활동을 정리하고 전남 나주로 이주하였다가 해방 직후 제주로 귀환하였다. 제주 귀환 후 기존 사업체 등을 정리하여 새로운 기업경영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1946년 스탠다드석유회사와 특약점 계약을 맺은 다음 제주도석유배급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장이 되었고 1952년에는 濟州美油株式會社를 남창석유주식회사로 개편하여 아들 박태勳이 그 운영을 맡아왔다. 또한 박종실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해운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는데 1958년에는 칠강선인 和洋號를 객선으로 개조하여 남창운수사를 설립한 후 1961년 7월에 제주부두의 하역권을 획득하였으며 裡理號 平澤

14) 제주상공회의소는 1942년(昭和 17년) 6월 5일 당시 제주상공회 사무실에서 창립하고 조선상공회의소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상공회의소는 근거법령에 따라 창립 발기인 30인 이상으로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회원 유자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었으며 영업세(본세) 7원 이상의 돼야 가능했다. 한편 당시 제주상공회의소 임원은 회장 島田宗實(朴宗實), 부회장 高松昌炫, 상임의원 高峰秀明, 衛藤不二生, 安村壽雄 등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상의65년사』(2000), 596~598쪽, 《한라일보》 1999년 2월 22일자 참조.

15) 변승규, 『제주도약사』(제주문화 1992), 189 쪽

號 등의 대리권 등을 얻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한 끝에 1966년 4월 남창운수주식회사로 개편하여 제주상운주식회사의 명맥을 이었다.

한편 박종실은 기업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부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1949년 10월에는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적십자사 지사장에 취임하여 약 2년 간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며,¹⁶⁾ 이어 1957년 6월에는 제주도서관을 건립하여 교육관련 기관과 학습공간의 절대 부족하던 척박한 제주도 교육환경에서 제주교육의 기틀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밖에 1965년 11월에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이들이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안식처인 경로당 ‘晴岩亭’을 건립하여 제주지역의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였다

2. 박종실의 語錄

박종실의 인생관, 기업관 등은 청암선생추모회에서 작성한 <청암선생 語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청암선생 어록>¹⁷⁾을 통하여 그가 제주도의 다른 기업가에 비해 독특한 신념과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청암선생 어록>의 내용을 인생관, 국가관, 기업관, 경영관 등으로 나누어 서술해 보겠다

《어록 1》 사람은 인정과 도덕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그를 멀리한다.

《어록 2》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해서 일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어쩐지 하느님이 도우셔서 일이 잘된 것 같이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6) 1949년 3월 15일 미군정하에 조선적십자사가 창립됨에 따라 동년 5월 15일 제주읍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제주도지사장 柳海辰을 선출하였다. 1949년 10월 5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개편하여 제주중학교 교정에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방대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 18명을 선출하고 초대 제주도지사장에 박종실을 선출하였다. 제주도, 『제주실록(1945-1996)』(1997), 27~28쪽

17) 청암선생추모회, 앞의 책, 161~162쪽.

《어록 3》 만족함을 알고 늘 만족한 마음을 가지면 일생동안 욕된 일이 없고, 욕망을 멈추는 것을 알고 늘 억제하면 일생 부끄러움이 없다(知足常足 終身無辱 知止常止 終身無恥).

《어록 1, 2, 3》에서는 인간의 도덕성, 천우신조, 욕망의 절제를 통한 박종실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박종실은 인정과 도덕을 강조하고 혼자 보다는 전체가 중요하며 욕망의 억제를 삶의 모토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박종실의 인생관, 도덕관은 그가 초년시절에 익힌 실학사상과 개회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오랜 삶의 경험과 경륜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어록 4》 우리나라는 공업입국이어야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다.

《어록 5》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하늘의 뜻을 따르면 관청도 맑아지고 백성도 스스로 안심하게 되고, 처가 어질면 남편이 화를 입는 일이 적을 것이고,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관대해 진다(國定天心順 官清民自安 賢妻夫禍少 子孝父心寬).

《어록 4, 5》는 공업화의 중요성과 국가의 통치는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국가관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람이 태어나서 국가와 사회에 보람이 있는 일을 해야 태어난 가치를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신념에 대한 구체적 실천으로 그는 ‘무역인으로 국가에 봉사하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교역을 통해 일본인으로부터 피해를 막고 국가에 공헌하여 무역인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였다. 이는 실학과와 개화파의 경제사상 상공업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어록 6》 신용은 생명이다.

《어록 7》 절약이란 끝이 없다.

《어록 8》 남자는 술, 담배, 여색, 잡기를 금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지, 나도 술을 먹고 엄병덤병 했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어록 6, 7, 8》은 신용, 절약, 근면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박종실은 자조와

자립의 정신, 덕과 신용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는 기업관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박종실상점은 물건의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신용과 절약, 근면을 바탕으로 한 경영방침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박종실 개인의 삶의 체험과 실천에서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절약과 근면, 절제는 기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앞선 시대를 뛰어간 선인으로서 현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강한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어록 9》 어떤 투자라도 자기 실력 삼분의 일 이상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산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재산 중 삼분의 일은 현금, 삼분의 일은 부동산, 나머지는 상품으로 해 놓으면 여하한 변동에도 큰 이익은 없다 해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三均配之論).

《어록 10》 이익은 혼자 차지하면 안 되는 것이야. 고루 나누어 가져야 하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신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조금씩 남겨서 많이 팔아야 되지. 박리다매가 좋아(利不可獨食).

《어록 11》 돈이란 빌려 주어 도움이 되기보다는 친한 사이를 멀게 하기가 쉽지.

《어록 9, 10, 11》은 기업가의 투자관, 이익분배와 판매방법, 금전관을 강조한 부분으로 특히 사업에 투자할 때는 전 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사업에 전 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날엔 굶어 죽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것은 현대 경영론 혹은 투자론적 시각에서 보면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이 불안정 속에서 선택하였던 전략으로 박종실식 경영의 특색이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람은 금전 관계로 義가 상하여 절친한 사이가 원수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강조하여 합리주의적 금전관계의 정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후세에 강조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III. 박종실의 기업경영 활동

1. 박종실의 기업경영

1) 제주도 법인기업 설립 현황

『조선실업신용대감』(1931)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전체 29명의 기업가가 활동하였는데 그 중에 한국인 18명(62%), 일본인 11명(38%)이 경영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당시 법인기업 설립현황을 보면 제주도에는 7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일본인 회사는 3개 사, 한국인 회사는 4개 사가 설립되었다¹⁸⁾ <표 1>에서 보면 박종실이 기업경영에 참가한 제주미유조합(1919년)은 자본금이 1만5천3백圓(불입자본금 1만5천3백圓)으로 다른 법인기업에 비해 자본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매출액은 6만圓으로 제주전기주식회사(3만圓), 제주주조주식회사(3만圓)에 비해 2배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신용, 지불, 업태는 A등급으로 다른 6개 법인기업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고승제에 의하면 1930년 말에 이르러 제주도에 13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일본인 회사는 1개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3개의 한일합자회사가 존재하였으며 나머지 9개의 회사는 오로지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된 한국인 회사들이었다. 아울러 1개 사의 일본인 회사는 상공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한림읍에 설립되었던 수산회사인 제주도어업주식회사로써 상공업에 대한 일본인 세력은 거의 좌절되었다고 후술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제주도민자본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노력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일제시기 다수의 법인회사가 설립되었다. 제주도민들 가운데 유력자

18)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31년 기준으로 총 12개의 법인기업이 설립되었다. 회사형태별로 보면 합자회사 2개사(해륙운송, 제주운송), 합명회사 2개사(개발상사, 만길), 주식회사 8개사(제주물산, 제주상선, 제주면업, 제주전기, 제주통운, 제주남부운송, 제주주조, 조선옥도)였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인 5개사, 일본인 4개사, 한일합자 3개 회사이며, 그 중에 4개 회사(제주상선, 제주면업, 제주통운, 제주주조)는 박종실이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했던 회사였다.

19) 고승제, 「한국해운업의 전개와 제주상선회사의 지위」, 『월간상의』, 5월호(대한상공회의소, 1973), 44쪽.

본가들은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본인이 설립한 회사와 경쟁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설립된 제주도민회사의 실태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36년 간 제주도 내에 설립된 법인회사 수는 52개에 달하였다. 1920년대에 8개 사에 불과하였으나 1930년대에는 18개 사, 1940년대 23개 사로 회사설립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한국인 30개 사, 일본인 18개 사, 한일합자 4개 회사이며 그 중에 34개 회사는 제주도민이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했던 회사들이다. 이를 회사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43개 사, 합자회사 4개 사, 합명회사 4개 사, 유한회사 1개 사로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회사의 소멸형태를 보면 해산이 12개 사, 합병 1개 사, 상호변경 6개 사이며 소멸 시기는 1920년대 1개 사, 1930년대 5개 사, 1940년대 13개의 회사가 소멸되었다.²⁰⁾ 이러한 제주도민의 중심이 된 회사설립은 식민지체제 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체제에 편입되어 갔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주체적인 도민자본을 형성하였고 제주도 최초의 근대자본가 계층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표 1> 제주도 주요 법인기업 설립현황(1931년도)

(단위 圓)

법인기업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 연월	자본금	불입 자본금	매출액	배당	신용	지불	업태
濟州米油組合	朴宗實	미유판매업	1919. 12.	15,300	15,300	60,000	30	A	A	A
州商船株式會社	金根著	선박운수업	1922. 08.	150,000	37,000	-	-	B	B	B
州綿業株式會社	金根著	면화판매업	1924. 10.	200,000	50,000	20,000	缺	C	C	C
濟州電氣株式會社	小倉武之助	전등·전력	1925. 02.	100,000	25,100	30,000	6	C	C	C
濟州通運株式會社	萩原駒藏	운송업	1925. 06.	6,000	6,000	-	-	C	C	C
濟州南部運輸株式會社	康性益	자동차운수	1927. 03.	7,000	7,000	-	-	C	C	C
濟州酒造株式會社	衛藤伊三郎	소주제조업	1928. 05.	40,000	10,000	30,000	超	B	B	B

출처: 岡田寅喜(編), 『朝鮮實業信用大鑑』(1931), 18~19頁.

20) 高廣明, 『植民地期における濟州道民會社の設立と發展』(現代韓國朝鮮學會發表, 2003), 5~6쪽.

2) 박종실의 회사설립 및 경영참가

제주도에서 회사조직을 가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된 것은 1920년 이후이며 이들 회사들의 대부분은 운수회사이거나 해운회사였다. 그가 근대기업가로 변신한 것은 1922년에 설립한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취체역으로 취임하면서부터이다 이로써 박종실은 1922년 그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해운업에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그는 기업설립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제주면업주식회사(1924)를 비롯하여 제주통운주식회사(1925), 제주주조주식회사(1928), 소화운송주식회사(1935) 등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제주상사주식회사(1935), 제주상운주식회사(1939) 등은 도민자본에 의하여 직접 설립한 기업들이다(<표 2> 참조).

<표 2> 박종실의 설립 및 경영참여 법인회사 현황

(단위: 圓)

법인기업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 년도	자본금	소재지	국적	소멸 시기	소멸 형태
제주상선 주식회사	김응두, 고석중	해운업	1922	150,000	제주면	한국	1934. 10.09	해산
제주면업 주식회사	김근시, 山口源藏	면화판매업	1924	200,000	제주면	한일합자	1943. 11.25	해산
제주통운 주식회사	萩原駒藏, 최운순	운송업	1925	6,000	제주면	한일합자	1942. 07.15	해산
제주주조 주식회사	衛藤伊三郎, 角健輔	소주제조업	1928	40,000	제주면	일본		
난곡면업 주식회사	김근시	면화가공업	1934	-	제주면	한국		
제주상사 주식회사	박종실, 角健輔	유통업	1935	30,000	제주면	한일합자		
소화운송 주식회사	김근시	운송업	1935	10,000	제주읍	한국	1942. 09.18	해산
삼일해운 주식회사	김태민	해운업	1936	22,500	제주읍	한국	1939. 07.16	상호 변경
제주상운 주식회사	박종실	해운업	1939	22,500	제주읍	한국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각 년도)에서 조사 작성

그리고 당시 설립 및 경영에 관계한 9개 회사 중에서 5개의 회사는 1930년 중반에서 1940년 초에 해산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회사들이다. 이처럼 그가 제주도 기업사에서 독보적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은 이 무렵 전통적인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킨 근대적 기업가이기 때문이다.

3) 박종실의 취체역 및 감사역 재직기간

박종실은 1905년 박종실상점을 개점한 이후 제주도에 9개의 기업조직을 가진 회사들을 직접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가하였다. 박종실의 경영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취체역은 회사설립에 관계된 8개 사, 감사역은 1개사에서 재직하였다. 그리고 취체역의 재직기간은 제주상선주식회사, 제주통운주식회사에서 4회를 역임하였으며, 나머지 4개사에서 2회, 3개사에서 1회를 역임하였다. 감사역의 재직기간은 소화운송주식회사에서 6년 동안 2회에 걸쳐 역임한 바 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해운업 3개 사, 운송업 2개 사, 면화가공·판매업 2개 사, 유통업 1개 사, 소주제

<표 3> 박종실의 취체역 및 감사역 재직기간

(단위 圓)

법인기업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년도	자본금	취체역	감사역	회수
제주상선 주식회사	김응두, 고석중	해운업	1922	150,000	1922-1934		4
제주면업 주식회사	김근시, 山口源藏	면화판매업	1924	200,000	1924-1926		1
제주통운 주식회사	萩原駒藏, 최윤순	운송업	1925	6,000	1925-1942		4
제주주조 주식회사	衛藤伊三郎, 角健輔	소주제조업	1928	40,000	1928-1934		2
난곡면업 주식회사	김근시	면화가공업	1934	-	1934		1
제주상사 주식회사	박종실, 角健輔	유통업	1935	30,000	1935-1941		2
소화운송 주식회사	김근시	운송업	1935	10,000		1936-1942	2
삼일해운 주식회사	김태민	해운업	1936	22,500	1937		1
제주상운 주식회사	박종실	해운업	1939	22,500	1939-1942		2

주: 대표자 김응두, 고석중(1922)→김근시(1923)로 변경됨
출처: <표 2>와 동일

조업 1개 사로서 대부분 해운업과 운송업에서 재직하였다(< 표 3 참조).

결국 박종실은 제주도 특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기보다는 해운업을 통해 무역상인으로 활동했다고 보아진다.

4) 박종실의 영업세 납부실적

박종실을 포함한 식민지기 제주도내 기업가들의 영업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당시 제주도 납세기록을 조사하였다.

<표 4> 제주, 한림읍 법인회사 영업세 납부실적

(단위 圓)

법인기업명	대표자	영업목적	설립 년도	자본금	국적	영업세	면적액
제주면업(주)	김근시, 山口源藏	면화판매업	1924	200,000	한일	90.36	
제주통운(주)	萩原駒藏, 최윤순	운송업	1925	6,000	한일	369.92	
제주주조(주)	衛藤伊三郎, 角健輔	소주제조업	1928	40,000	일본	118.12	
제주해운(주)	김입길	해운업	1935	20,000	한국	21.64	
제주상사(주)	박종실, 角健輔	유통업	1935	30,000	한일	490.56	
(주)伴商店	角健輔	잡화판매업	1935	30,000	일본	108.14	
소화운송(주)	김근시	운송업	1935	10,000	한국	98.63	
남선상사(주)	김영희	무역업	1936	50,000	한국	31.66	
제주상운(주)	박종실	해운업	1939	22,500	한국	139.54	
제주목재(주)	문재석	목재판매업	1938	30,000	한국	83.08	
제주수산(주)	김근시	수산물판매업	1940	80,000	한국		100.00
제주산업(주)	竹中新太郎	농산물가공업	1941	100,000	일본		100.00
제주통조림(주)	高山固岸	통조림제조업	1941	50,000	일본		150.00
제주흥아상공(주)	황순하	해태건조업	1942	100,000	한국		100.00
조선해면기업(주)	황순하	해면정제업	1942	180,000	한국		100.00
제주읍 계(15명)						1,551.65	550.00
제주도어업(주)	有吉京吉	운송업	1936	300,000	일본		1,000.00
고정봉회조부(주)	고정봉	화물여객업	1937	20,000	한국		100.00
竹中組(주)	竹中新太郎	화물여객업	1941	20,000	일본	92.52	
제주도산업상사(주)	大村降行	육해산가공업	1940	50,000	일본		
한림읍 계(4명)						92.52	1,100.00
총계(19명)						1,644.17	1,650.00

출처: 濟州商工會,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1940), 4~6, 12~15 頁

당시 제주도에서 營業稅(本稅) 7원 이상 납부자는 제주읍 281명(개인 266, 법인 15), 한림읍 147명(개인 143, 법인 4), 애월면 40명(개인), 조천면 53명(개인 32, 법인 19)으로 총 468명이었다. 지역별로 납부금액을 보면 전체 20,743圓87錢 중에서 제주읍 12,383圓19錢(개인 10,281圓54錢, 법인 2,101圓65錢), 한림읍 6,496圓52錢(개인 5,304圓, 법인 1,192圓52錢), 애월면 985圓(개인), 조천면 876圓16錢으로 제주읍이 50% 이상 납부하였다.²¹⁾

법인회사별 영업세는 1941년 기준으로 제주상사주식회사(490圓56錢)와 제주동운주식회사(369圓92錢)가 가장 많이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종실은 제주읍내 법인회사 전체 납부액 1,551圓65錢 중에서 6개의 법인회사를 포함한 총 1,307圓13錢(84.2%)을 납부함으로써 개별기업가로는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4>참조). 이러한 영업세 납부실적으로 보더라도 박종실은 제주경제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며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2. 주요 기업의 경영활동

1) 박종실상점

박종실은 행상에서 출발하여 1905년 8월에는 제주면 1도리에 ‘박종실상점’을 개점하였다.²²⁾ 자본금은 소규모 금액으로 시작하여 식료품, 건면포, 철물류 등의 잡화를 취급하는 무역상이었다. 영업목적은 제주도 물자를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의 물자를 제주로 들여오는 수출입 교역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에 따른 법인회사를 하나씩 설립해 나갔다.²³⁾ 그 후 박종실이 법인회사를 직접 설립한 회사는 제주상선주식회사(1922년), 제주상사주식회사(1935년), 제주상운주식회사(1939년) 등 3개회사이다. 이들 회사들은 박종실상점을 구심점으로 형성된 연계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21) 濟州商工會,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1940), 12頁

22) 『조선실업신용대감』(1931)과 고승제에 따르면 박종실이 1905년 8월에 박종실상점을 개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朝鮮總督府官報 中 濟州錄』에는 1915년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 상호를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박종실은 1905년에 상업 활동을 개시하고 1915년에 상호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고승제, 『한국경영사연구』(한국농림협회, 1975).

23) 《朝鮮總督府官報》1915年 12月 7日字.

그러나 박종실상점은 개인회사였기 때문에 법인회사의 범주에 들지 못하였지만 경영조직으로서의 역량은 상당한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실업신용대감』(1931)에 따르면 박종실상점이 연간 판매한 매출액은 4만6천8백원으로 제주도에 서는 제1위를 차지하였다. 제2위는 최윤순으로 4만3천원, 제3위는 村田嘉藤治으로 4만2천원이었다. 한편 부동산 등 재산총액을 비교하여 보면 박종실의 소유한 재산 총액은 8만5천원이었으며 최윤순은 4만6천원, 村田嘉藤治은 5만5천원이었다. 그 외의 한국인들은 3만5천원에서 6천2백원에 이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순자산은 박종실이 7만원, 角健輔이 6만5천원, 최윤순과 石井榮太郎이 3만원을 차지하였다. 신용은 A급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 동업자 지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지불, 業態부분에서는 B급 상태였다.²⁴⁾

이러한 박종실상점의 경영활동은 단순한 잡화류의 소매상에서 그치지 않고 자본력을 여러 회사에 나누어 분산투자하면서도 법인회사의 핵심은 언제나 박종실상점에 두었다. 또한 그는 여러 사업에 다각적 경영을 도모하면서 여타 부적절한 이권사업에는 손대지 않았다. 당시 제주도에서 특산물을 가공하는 회사가 적지 않았지만 박종실은 제조업에 진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박종실은 어디까지나 상인으로써 상인정신에 충실하려 한 것이 그의 사업철학이었다고 여겨진다.

2) 제주상선주식회사

1920년대 제주도 내 상업과 교통의 발달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제주도는 본래 토지생산성이 낮아 토지자본의 성장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급격한 자본주의 진화과정 속에서 지주자본의 상업자본 혹은 산업자본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은 주체적으로 지역자본을 축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1922년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설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제주상선주식회사는 1922년 8월 설립된 후, 1923년 1월 1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923년 2월 1일 본점을 제주면 건입리로 이전했다. 자본금은 15萬圓(불입 자본금 3만7천원)으로 신용, 지불, 業態는 B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영업목적

24) 岡田寅喜(編), 前掲書 18~19頁

은 大阪, 下關 및 조선 각 연안항로의 선박영업을 주로 하고 기타 부대사업으로 금전대부도 겸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같은 해 김응득, 고석중이 퇴임하면서 회사대표 취체역을 김근시로 정했다.²⁵⁾ 1924년 6월 20일 취체역 회의에서 제주면 건입리 村井彬을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7월 29일 취임하였다. 제4차 정기총회에서 취체역 황순하, 金桂潤, 梁斗錫은 같은 해 7월 30일 해임되었다.²⁶⁾ 그 후 취체역 金泰鎬는 임기만료로 1925년 8월 1일 퇴임하고 김근시, 박종실, 최윤순, 金厚植 등은 임기 만료되었으나 1925년 8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재선되어 중임하고 감사역 金成培는 1925년 7월 30일 사임하였다.²⁷⁾ 1928년 1월 30일 감사역 김임길, 김계윤은 임기 만료되었으며 최원순,²⁸⁾ 萩原駒藏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역으로 다시 선임되어 취임하였다.²⁹⁾ 동사는 1934년 9월 27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게 되고(해산 등기는 1934년 10월 9일),³⁰⁾ 1935년 11월 25일에는 청산 종결하여 그 결산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다.³¹⁾

당시 巨濟運航株式會社, 森信汽船會社, 延安汽船會社 등의 해운회사가 다른 지방에서 잇따라 설립됐으나 이들은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국내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부산, 목포, 군산 등의 개항에도 조선인에 의한 상선회사의 설립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주상선주식회사는 부산, 목포 등의 연안항로의 개설은 물론 大阪, 下關 등의 국제항로까지 개설했던 것이다 따라서 목포, 부산, 군산, 원산 등 수많은 개항장에서도 한국인 상선회사가 끝내 실현되지 못했던 점에 미뤄 볼 때, 제주상선주식회사의 존재는 당시 상황에서 커다란 경제적 의미가 있다.

박종실의 숙원사업은 제주자본에 의해 해운회사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1922년 8월 김근시, 최윤순, 김임길 등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합자하여 제주상선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제주자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해운회사이다. 회사경영

25) 《朝鮮總督府官報》 1923年 3月 16日字.

26) 《朝鮮總督府官報》 1924年 8月 26日字.

27) 《朝鮮總督府官報》 1925年 10月 3日字.

28) 최원순(崔元淳: 1876~1954)은 호는 友石으로 분단시대의 제주지방법원장 변호사를 역임하였다. 그 후 1935년 제주소화운송주식회사 사장으로 사업에도 착수하여 1937년 제주금융조합장, 제주산업조합 감사역으로 추대된 바 있다. 김찬흠(편자), 앞의 책 394~395 쪽

29) 《朝鮮總督府官報》 1934年 10月 4日字.

30) 《朝鮮總督府官報》 1934年 10月 31日字.

31) 《朝鮮總督府官報》 1936年 2月 3日字.

에 있어서는 김근시를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추대하고 감사역에는 김임길, 박종실은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최윤순과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취체역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국내지역에 한정되어 운행하지 않고 제주도민의 해외진출에 크게 이바지하여 해운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만들었다. 점차 박종실상점의 사세는 제주상선회사를 통한 수출입에 힘입어 더욱 확장되었고 ‘利不可獨食’의 신념에 따라 판매가격을 낮춤으로써 도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3) 제주상사주식회사

박종실은 1931년에 상품유통의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소맥분, 설탕, 칠성소주 등을 주요 판매품목으로 하는 제주상사조합을 설립하여 초대 조합장을 맡았다. 조합원에는 高昌炫, 洪宗彦 등이 참가하였는데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 중 소맥분 거래에 있어서는 日淸製粉의 中寅商店(下關의 총대리점)과 특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산과 목포지역의 총대리점 사원들은 근거리의 자기들과 거래하지 않고 下關지역과 직접 상대했다고 하여 상거래의 방해공작을 하였으며, 제주상사조합에 일본인조합원의 가입을 간접적으로 종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제주상사조합의 임의단체를 법인단체로 개편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1935년 6월에는 법인단체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주주로는 角健輔, 古賀龜太郎 등 일본인 2 명을 가입시키고 제주상사주식회사를 발족하였던 것이다.³²⁾

제주상사주식회사는 1935년 6월 2일 제주읍 2도리에 설립하였다(설립등기는 1935년 7월 20일). 동사는 자본금 3만圓으로 일본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설립목적은 ① 잡화류 판매(설탕, 밀가루, 소주, 맥주, 사이다, 잡곡, 비료, 석탄, 석유, 직물 등), ②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취득, 확실성 있는 사업에 투자, ③ 보험 대리업무, ④ 부대사업 일체를 취급하는 무역상사이었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취체역으로 角健輔, 박종실, 고창현 등이며, 감사역은 古賀龜太郎이 선임되었으며 존립시기는 설립일로부터 만 20년이였다.³³⁾ 1935년 9월 22일 임시주

32) 청암선생추모회, 앞의 책, 42~43쪽.

33) 《朝鮮總督府官報》1935年 8月 28日字.

주총회에서 角健輔를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선임하여 취임하였다.³⁴⁾ 1937년 9월 19일에는 자본금 8천원을 증자하고 新株拂入額 20 圓으로 하는 자본증액을 결의하였다.³⁵⁾ 1941년에는 취체역 角健輔, 박종실, 고창현, 감사역 古賀龜太郎은 중임하고 角健輔는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취임하게 된다.³⁶⁾

또한 1940년 4월에는 제주도 생활필수품상업조합을 창설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사장직을 수행한 것은 박종실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민족감정의 발로였다고 보여 진다. 또한 평소 박종실의 가지고 있던 신념 즉, 제주도민의 원활한 소비생활을 위한 기업 활동을 생활필수품조합을 통하여 실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4) 제주상운주식회사

1922년 8월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해운회사인 제주상선주식회사는 급변하는 경제적 환경 하에서 생존하지 못하고 1934년 9월 27일(청산종료일은 1935년 11월 25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다. 제주상선주식회사가 재계에서 사라지면서 삼일해운주식회사를 1936년 3월 30일 제주읍 건입리에 설립하였다. 자본금 총액은 2만2천5백圓(불입자본금 : 2만2천5백圓)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 자본규모가 그다지 큰 것은 아니었지만 1주당 금액은 50圓이고 1주당 불입금액도 50圓이었다. 당시 제주도의 법인기업들은 공청자본금과 불입자본금이 일치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³⁷⁾ 이 회사의 설립목적은 선박의 화물 및 여객의 운송영업을 취급하는 해운회사이었다. 경영진 구성을 보면 회사대표 취체역 金泰玟 취체역 金泰國, 文在禱, 감사역 文在奭이 선임되었으며 존립 시기는 설립일로부터 만 20년이였다.³⁸⁾

이후 1939년 7월 16일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일해운주식회사는 제주상운주식

34) 《朝鮮總督府官報》 1935年 11月 16日字.

35) 《朝鮮總督府官報》 1937年 10月 26日字.

36) 《朝鮮總督府官報》 1941年 9月 22日字.

37) 박종실이 일본인 2명과 합자하여 경영하고 있었던 제주상사주식회사는 공청자본금 3만圓에 대해 불입자본금이 3만圓이었다. 제주목제주회사도 공청자본금 3만圓에 대해 불입자본금이 3만圓이었다. 고승제, 앞의 책(1975), 267~268쪽.

38) 《朝鮮總督府官報》 1936年 7月 31日字.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다. 김태민, 문재숙은 취체역 임기가 만료되어 동일 총회에서 재선 중임하게 되지만 박종실은 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취임하게 되었다.³⁹⁾ 이로써 제주상선주식회사가 소멸되면서 김근시는 해운업계에서 사라졌으며, 반면 삼일해운주식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박종실이 제주해운업계의 유일한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1941년 12월 18일 취체역 李漢哲이 중임하게 되고 1942년 2월 7일에는 金昌五, 高島永光이 취체역으로 취임하게 된다.

1942년 2월 17일에는 자본금 2만7천8백圓을 증가하고, 新株拂入額 25圓으로 하는 자본증액을 결의하였다.⁴⁰⁾ 그리고 회사대표 취체역 박종실, 취체역 문재숙, 감사역 문재석은 1942년 12월 25일 중임하고, 취체역 김태민은 사임하여 감사역에 취임하였다.⁴¹⁾ 이때 국제항로가 취소되고 주로 제주-목포 간 정기여객선인 朝鮮汽船株式會社 소유의 晁和丸와 晁永號의 선박대리점으로 변모되고 말았다. 그 후 晁和丸은 미군의 폭격으로 침몰되고 1945년 이후에는 晁永號 한 척만이 제주-목포 간을 왕래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 후 晁永號는 朝鮮汽船株式會社로부터 近海商船株式會社로 소유권이 넘어 갔다. 박종실은 제주상운주식회사의 경영을 문재숙, 김태국에 일임하여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이번에는 近海商船株式會社가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약함으로써 1939년 설립이후 제주상운주식회사는 해체되었다.

그 후 박종실은 철강선인 화물선 和洋號를 객선으로 개조하여 1958년 9월에 남창운수사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고 1961년 7월 대표이사 박태훈은 하주에 대한 편의제공과 화물수집의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운송사업법에 의한 하역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로써 제주도에는 대한통운주식회사, 제주해륙운수회사와 더불어 3개 운수회사가 경쟁을 시작하게 된다. 1962년 이후 회사별 하역실적을 보면 남창운수사가 50%, 나머지 50%는 대한통운주식회사와 해륙운수주식회사 2개사가 차지하게 되었다.⁴²⁾ 그 후 동사는 대한해운공사의 제주-부산 간 화물선인 裡里號, 平澤號의 대리권을 얻었으며, 1966년 4월에는 남창운수사를 남창운수주식회사⁴³⁾로 개편하였다.

39) 《朝鮮總督府官報》 1939年 9月 1日字.

40) 《朝鮮總督府官報》 1942年 5月 26日字.

41) 《朝鮮總督府官報》 1943年 2月 22日字.

42) 청암선생추모회, 앞의 책, 53쪽.

43) 『제주연감』(1977)에 따르면 박종실의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경영에 참여한 박태훈은 1970년

IV. 박종실의 경영정신과 사회적 공헌

1. 박종실의 경영정신

기업에는 제각기 독특한 경영정신이 있다. 대개 기업가의 철학이나 경영신조에 서 나오는 경영정신은 그 기업에 몸담고 있는 종업원 전체의 공감대로 정착하여 그 기업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 더욱이 경영정신은 기업가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개인적 신조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정신이라 함은 창업자가 기업경영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 지주, 기본적 가치, 실천적 행동지침, 신념, 태도 등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경영자가 경영활동을 통하여 지켜야 할 정신적 및 실천적 행동지침이며, 경영철학, 경영사상과 미래지향적인 행동원리, 지도원리를 의미한다. 그것은 기업가의 가치관이나 경영철학, 사상 등을 정신적 신조로 삼아 구성원의 실천적 경영지침을 경영정신으로 명시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로서 대부분 경영정신은 사훈, 좌우명, 생활신조, 社是, 경영철학, 경영사상, 창업이념 등 정신적 가치관과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영행동 실천 강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되지만 그것이 경영정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⁴⁴⁾

그런 의미에서 박종실은 몇 가지의 뚜렷한 신념과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영정신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겠으나, 그의 경영정신은 그의 경영철학에서 그 틀을 형성하게 되는데 ‘信用第一主義’, ‘三均配之論 投資觀’, ‘合理的 企業經營觀’ 등 세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겠다.

1) 신용제일주의

박종실은 지금까지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

대 이후 남창석유주식회사(사장), 남창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를 운영한 바 있으며, 朴哲勳(朴宗熙 2남)은 남창운수주식회사 대표(카페리 제주취급소장)를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연구감사, 『제주연구』(1977), 320-321 쪽

44) 고승희(외), 『아산 정주영 연구』(修書院 1999), 32 쪽

을 무기로 한 경영정신이라고 술회한다. 그리고 신용, 근면, 절약 중에서 신용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여 항상 신용제일주의를 기본신조로 삼아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 왔고 이를 충실히 실천적 행동으로 이행하였다. 그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신용을 생명으로 알고 행동에 옮긴 경우는 많은데 신용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도 나타난다. 일제시기 朝鮮殖産銀行 제주지점⁴⁵⁾에서 당시의 돈 3천 원 정도를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는 당좌차월을 갖고 있던 사람은 박종실을 포함하여 세 사람 뿐이었을 정도로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거래가 좋았다.

해방 후 박태훈(박종실의 3남)이 상점을 맡아 사업을 하면서 부친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으나 박종실은 자식에게조차 담보는 물론 보증도 서 주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남에게 기대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잡화상을 경영할 때 수백 종에 이르는 상품의 출납을 본인 스스로 일일이 맡아보면서 언제나 잔고를 알고 있었고, 재고가 없도록 물건을 직접 주문하는 세심함과 근면성을 보여주기도 했다.⁴⁶⁾

이처럼 박종실은 190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50년 이상을 일제의 탄압과 6.25 동란을 겪으면서 제주도 기업을 성장·발전시켜 왔다. 그가 박종실상점(1905)을 비롯하여 제주상선주식회사(1922년), 제주상사주식회사(1935년), 제주상운주식회사(1939년) 등을 차례로 설립·운영하여 괄목할 만한 영업성적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신용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의 탁월한 경영전략과 실천적이고 추진력 있는 기업경영의 결과였다.

2) 삼균배지론 투자관

박종실의 경영활동 과정을 고찰해 보면 식민지기, 해방, 6·25와 같은 시대적 혼란기의 사회 속에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독특한 경영원칙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본의 구성을 현금, 상품, 부동산의 삼분법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으로 위험을 줄이면서 폭리나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안정적이고 신뢰

45) 일제는 1918년 朝鮮殖産銀行을 설립한 후 1911년에 설립한 光州農工銀行 제주지점(한국인 경영을 강제로 해산시켜 흡수 합병하였다. 김봉욱, 『중보 제주통사』(세림 2000), 243 쪽

46) 청암선생추모회, 앞의 책, 90-91쪽.

성 있는 투자관으로 현대경영학의 개념에 보면 ‘포트폴리오(portfolio)’라고 할 수 있다.

대동아 전쟁 당시 박종실은 전라남도 나주군으로 이주한 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가져갔던 사람이 있었으나, 그는 재산을 그대로 두고 갔다. 결국 재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갖고 갔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떨어져 큰 손해를 보았지만 그의 부동산은 그대로 남아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1951년에는 석유업체 德順社를 맡아 경영하게 되었는데 당시 자본은 휘발유 3백 드럼뿐이었다. 석유사업을 시작한지 1년 후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묻은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휘발유는 몇 드럼이나 남았냐고 묻고 난 다음 휘발유 3백 드럼으로 시작했으니 언제나 휘발유 3백 드럼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⁴⁷⁾

이러한 박종실의 미래에 대한 안목은 1919년 10월 아무도 흥미를 느끼지 않는 제주시 동문로터리 남쪽에 자리 잡은 속칭 소래기동산 2,080평을 매입한 데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삼균배지론 투자 원칙에 의한 토지매입 사례로 1927년에는 다시 2,000평을 매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 주위에 상당한 토지를 매입하였다. 당시 이 땅은 불모지였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이었지만 제주도의 관문인 산지포구를 굽어보는 위치에 있고 지형이 자연경사를 바다 쪽으로 이루고 있으며 배수가 잘되는 고지였으므로 장차 주택지로서 최적지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 토지는 박종실이 예견한대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칠성동과 더불어 제주도 제1의 요지가 되었다. 그 후 제주도의 경제중심지가 되면서 동문공설시장이 개설되고 도내 모든 물자의 산지가 되어 교회와 극장이 건축되었다. 그렇지만 박종실은 토지를 당국에 기꺼이 무상으로 회사했으며, 이는 도로 및 공공건물로 사용되었고 토지 중의 일부를 개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반드시 기와 혹은 슬래브, 최소한 스투트 지붕으로 건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시가지 미화를 손수 시행하는 선견도 보였다.⁴⁸⁾

이상에서 보듯이 박종실의 재테크 기본적 전략은 재산 중 삼분의 일은 현금, 삼분의 일은 부동산, 나머지 삼분의 일은 상품으로 균배해 놓고 향후 물가의 변동

47) 위의 책, 91쪽

48) 위의 책, 37~38쪽

등과 같은 불규칙한 경제 변동 시에도 위험을 분산시켜 장기간으로 보면 큰 이익은 없다 할지라도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3) 합리적인 기업 경영관

박종실은 제주도에 근대적인 경영기법을 최초로 도입한 기업선구자였다. 20세기 초 일본인들이 들어와 순박한 도민들에게 그들의 상술을 강제 적용시켰다. 사농공상의 사회질서를 고집하던 토착상인들은 꿈쩍없이 일본인에게 모든 상권을 넘겨주어야 만 했다. 그러나 박종실은 일본인 독점의 상권에 도전을 위해 제주도민 특유의 대량생산 기법과 새로운 판매방법을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옛을 만드는 법도 바꾸고 파는 상술도 달리해 이를 발전시키고자 1905년 박종실상점을 칠성통에 개점하여 명성이 알려졌다. 이후 박종실상점을 거쳐 간 종업원들도 박종실의 영업기법을 익히고 난 뒤 독립하여 제주의 상공인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는 합리적인 경영과 신용을 기업경영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독특한 신조인 ‘利不可獨食’(이익을 혼자 먹을 수 없다)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즉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매입선인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나아가서는 일반소비자 등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나 소매업자는 그를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대량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박리다매 방식을 통해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다.⁴⁹⁾ 더욱이 대량판매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내 생산품은 생산자와 직접 연결시켜 주었으며, 수입처를 다각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약체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모색해 나갔다.

또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노력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는 신조로 박종실상점을 경영하였다. 훗날 高昌炫, 洪宗彦, 金錫潤, 高君燦, 高柄孝, 高薰範과 같은 사원들이 기업인으로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영철학을 습득하여 실행한 것으

49) 진관훈에 의하면 제주읍에 대표적인 상인이었던 박종실은 신용을 바탕으로 利不可獨食을 좌우명으로 삼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종실은 오히려 물건을 많이 팔려고 물건을 날개로 팔지 않고 단(세트), 혹은 묶음으로만 팔았다고 한다. 진관훈,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도서출판 각, 2004a); 진관훈, 『동부구좌소비조합』, 『제주학』 제 1호 제주학연구소, 1999), 152쪽.

로 보여 진다. 또한 사원들이 사업가로 독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여 주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박종실상점에 근무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게 되었다.⁵⁰⁾

따라서 박종실은 신용, 근면, 절약을 기본정신으로 삼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폭넓게 기업가 활동을 하였다. 그의 경영정신은 제주도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경영에서도 항상 신용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신용, 근면, 절약에 대해 몸소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가 근대 무역인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용제일주의와 삼균배지론에 의한 투자관을 스스로 실천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상인은 근검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나아가 박종실은 전통적인 상인정신을 승계 한 근대적 기업가였다고 말할 수 있다.

2. 박종실의 사회적 공헌

기업은 사람, 땅, 돈, 자원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급받는다. 기업은 이것들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활용해서 국내외의 어떤 기업의 제품보다 양질의 저렴한 제품과 서비스를 국가, 사회와 국제사회에 공급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⁵¹⁾ 그와 같은 경영 노력의 성과를 세금과 임금 그리고 배당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그 나머지를 이윤으로 축적해서 기업발전의 재원으로 쓴다. 이처럼 기업의 공헌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풍족한 제공이며 고용과 소득 기회의 확대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의 재원을 이루는 납세의 세원 조성이다. 곧 기업은 수익을 축적하여 새로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확대 재생산해 나감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경영의 성과를 세금과 임금, 배당, 지역사회 등으로 분배하여 국가 운영의 기초를 풍부하게 하면서 기업 자체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다.

박종실은 1957년 어려운 시기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불우한 청소년을 위하여 사재를 기꺼이 내놓고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제주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

50) 청암선생추모회, 앞의 책, 35쪽

51) 삼성경제연구소, 『호암의 경영철학』(중앙일보사, 1989), 6쪽.

였다. 이를 기증하고 제주도립도서관으로 육성시킨 그 탁월한 안목과 실천력은 교육과 육영을 통한 인재양성이 경제에 앞서는 백년대개임을 간파한 인식의 발로였다. 당시 제주도에는 1956년까지만 해도 그러한 기능을 띤 공공도서관이 전혀 없어서 시민들의 학습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박종실은 제주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높은 뜻을 세우고 1957년 제주시 삼도1동 235-25번지의 토지(부지: 310평, 건평: 1173평)를 매입하고 그 곳에 본관건물을 신축하여 동년 6월 1일 제주도에 기증함으로써 제주도립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고,⁵²⁾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문화공간을 갖게 되었으며 동년 11월 1일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64년 1월 1일 제주도교육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이관되었다. 그는 도서관을 세운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와 손자들에게 서적을 수집하여 기증하도록 독려하고 이에 감화를 받은 외손녀 고경신(고광림 박사의 딸)이 미국에서 용돈을 모아 3천여 권의 장서를 기증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1962년에는 그가 재학하고 있던 고등학교에서 제주도 학생들을 위하여 도서를 수집하여 총 700여권의 영문서적을 제주도립도서관에 보내온 사실이 있다.⁵³⁾

이 외에도 1965년 11월에는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이들이 시간을 보내며 즐길 수 있는 안식처인 경로당 晴岩亭을 건립하여 제주시에 기증한 바 있다. 또한 1968년 6월에는 박종실의 1주기를 맞이하여 고인의 유지에 따라 3형제 박경훈, 박태훈, 박충훈)가 재단법인 晴巖育英會를 설립하였다. 1978년부터 도내출신으로 기술계대학생들과 도내 중·고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후 제주의 상공인 박종실이 1966년 6월 82세라는 나이로 타계하자 관덕정 광장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그의 장례는 어려운 시기에 현대적인 기업을 일으켜 부를 축적하고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던 그의 경영자윤리를 추모하는 사회적 의의가 있었다.

이러한 박종실의 사회공헌활동을 고찰해 보면 '돈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다. 'The worth of money is not in its possession, but in its use' 는 서양격언에서처럼 박종실의 사회공헌활동은 돈을 벌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기업가윤리를 실천하였고 공공의 투자가 보람되

52) 김학보, 『제주도립도서관약사』(제주도립도서관 1988), 21 쪽

53) 청암선생추모회, 앞의 책, 54, 113 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 연구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소외되어 왔고 학문적 관심 밖이었던 제주도 기업가들의 기업 활동과 생애를 올바르게 자리매김 제주기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제주기업인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제주경영인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연결되는 제주의 기업가상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나아가 제주기업인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전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보았을 때 박종실은 제주도의 근대적인 기업가이며 사회사업가로서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귀감의 되는 인물이다.

박종실은 소규모 소매상점에서 시작하여 훗날 종합무역상사의 효시이자 ‘민족자본의 태동’으로 일컬어지는 종합해운상사를 경영한 기업인이다. 특히 박종실은 교역을 통하여 일본인으로부터 피해를 막고 국가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으로 많은 지역경제활동에 이바지하였고 제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또한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한 이익을 부의 축적에만 그치지 않고 도립도서관 기증, 경로당 건립, 육영사업 등 ‘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범적인 기업가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제주도경제가 활성화되었고 현 제주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신용과 근검, 절약으로 자본을 축적해 가며 애국정신과 신용제일주의를 근본적인 경영정신으로 삼고 기업윤리를 실천적 행동으로 옮긴 박종실의 기업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박종실은 한말의 혼란기에 태어나 일제의 식민지시대 해방 직후의 혼란기 등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기업가로서 일생을 보냈다. 그의 50여 년 동안의 기업 활동은 제주도 기업의 발자취를 나타내기도 있기도 하며 그가 걸어온 발자취는 제주도 기업 및 기업가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렇듯 그는 제주도에서 자수성가형 기업가의 표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둘째, 박종실은 제주도에서 최초로 기업형태의 모습을 가진 ‘박종실상점’을 개점하였다. 이는 제주도 근대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나아가서는 제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박종실은 한국에서 최초로 제주자본에 의해 해운회사를 설립하였다. 더욱이 교통의 발달을 통해 제주도민의 해외진출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한국 해운업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만들었다.

넷째, 박종실은 그의 경영정신인 신용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근면과 절약을 바탕으로 한 성실하고 검소한 기업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박종실은 근대적인 기업을 일으켜 부를 축적하여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경영자윤리를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기업가였다.

참고문헌

《한라일보》.

《朝鮮總督府官報》, 1910-1945.

고승제, 「한국해운업의 전개와 제주상선회사의 지위」 『월간상의』 1973년 5월호 1973.

고승제, 『한국경영사연구』. 서울: 한국능률협회, 1975.

고승희(외), 『아산 정주영 연구』. 서울: 修書院, 1999.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제주: 세림, 2000.

김찬흠(편저),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 제주문화원, 2000.

김학보, 『제주도립도서관약사』. 제주: 제주도립도서관, 1998.

변승규, 『제주도약사』. 제주: 제주문화, 1992.

삼성경제연구소, 『호암의 경영철학』. 서울: 중앙일보사, 1989.

善生永助, 『濟州島生活狀態調査』(1929). 제주: 遇堂圖書館, 2002.

제주도, 『제주실록(1945-1996)』. 제주: 제주도, 1997.

濟州商工會, 『濟州商工會議所設立關係』, 1940.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상의55년사』. 1991.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상의65년사』. 2000.

제주역사연구회, 『제주 제주인』 제2집, 1992.

제주연감사, 『제주연감』. 1977.

진관훈, 「동부구좌소비조합」, 『제주학』 제4호, 제주학연구소, 1999.

-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경제와 해녀노동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1호, 2004b.
진관훈,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제주: 도서출판 각, 2004a.
청암선생추모회, 『청암선생: 신용은 생명』, 서울: 일간내외경제코리아헤럴드, 1979.
高廣明, 『植民地期における濟州島民會社の設立と成長』, 東京: 現代韓國朝鮮學會發表資料, 2003.
岡田寅喜(編), 『朝鮮實業信用大鑑』, 東京: 日本興信所京城支所, 1931.
河明生, 『韓人日本移民社會經濟史』, 東京: 明石書店, 1997.

● 투고일 : 2005. 2. 1.

● 심사완료일 : 2005. 5. 27.

● 주제어(keyword) : 기업가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ies), 상인정신(business spirit), 기업가 윤리(entrepreneur's ethic), 신용(credit), 사회공헌활동(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K C I